

지 상 법 석

일평생 꿈속을 헤맵니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밖에서 다른 무엇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평등하고 이것은 어떠한 장애와 결핍이 없기 때문에 마음 자체 그대로가 자체무애하고 상주불생(常住不生)하고 상주불멸(常住不滅)하는 것입니다. 영원불멸의 생명체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미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평등한데 마음을 모르면 그대로 불평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되면 이로 인해서 모멸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그대로 변질됨으로써 업에 끌려나고 죽는 등 우리의 근본과 아무 상관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기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생육도라 합니다.

중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력과 지혜와 자비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 원력, 이 셋이 바로 팔만사

다. 이것을 청정여래선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결국 최상승선과 청정여래선은 같은 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청정여래선이 가장 완전무결한 선입니다. 청정여래선은 모든 격식을 초월한 선입니다.

모든 불자는 이런 점을 크게 배우고 대오각성하여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에 비추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중생의 망념에 불과하며 실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확철대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확철대오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안목이 분명해야 되고 안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를 성취해야 되며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선을 올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선에도 올바른 선이 있고 사선이 있습니다. 중국 단나라 시대의 종밀이란 스님이 저술한 <선원집집도서>란 책에 의하면 참

다. 이것을 청정여래선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결국 최상승선과 청정여래선은 같은 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청정여래선이 가장 완전무결한 선입니다. 청정여래선은 모든 격식을 초월한 선입니다.

모든 불자는 이런 점을 크게 배우고 대오각성하여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에 비추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중생의 망념에 불과하며 실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확철대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확철대오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안목이 분명해야 되고 안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를 성취해야 되며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선을 올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선에도 올바른 선이 있고 사선이 있습니다. 중국 단나라 시대의 종밀이란 스님이 저술한 <선원집집도서>란 책에 의하면 참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의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곧 허깨비이고 구름같고 안개같고 거품같은 것입니다. 왜하면 몸과 마음은 업으로 인해 임시로 생긴 가성(假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된 것이고 마음은 의식, 망상과 번뇌로 얽힌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 참된 마음, 참 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전체가 거짓 덩어리입니다.

육조혜능대사께서는 화두에 1천7백공안이 있으며 그것은 '이뉘꼬'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만사천의 법문이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듯이 화두 역시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뉘꼬'만 가지면 시

방하게 모든중생이 성불하고도 남습니다. 이 의식은 가장 수승하고 높은 것입니다. 왜하면 모든 부처님, 조사가 이로운 해 견성했고 중생의 앞길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은 일만성인(一萬聖人)의 근본이고자 귀의처이고 스승이며 모체입니다.

참선은 화두를 들때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체와 용이 분명하게 되기에 절대평등의 경지입니다. 화두는 남노소 빈부귀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행해야 합니다.

참선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계속 정진하면 일부로 틀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의 꽃입니다. 화두의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과법칙의 참된 진리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식과 생각이 필요없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법은 이와같이 간단하고 단순하며 순수합니다.

불자로서 선을 행하지 않고 허무한 곳에 마음을 두고 희희낙낙한다면 바로 일장춘몽의 꿈 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오직 법이 충만할 뿐입니다. 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도 없고 들음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자리에서 어떤말이 있거나 들음이 있다면 이 주장자가 풍곡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론에서의 八不 중에 不生不滅, 不常不斷, 不一不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나 남은 不去不來를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을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不垢不淨)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5

양행진

불구부정

이름지어 평가하는 것 뿐이니, 이러한 감각은 인간존재에서 있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구속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구부정이란 우리 오관의 감각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우리에게 는 안이비설신의 6근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감각이 나타나, 깨끗하고 더럽다든가 아름답고 추하다는 여러 감각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왜 불구부정이라 하였는가. 음식맛을 예로들어 살펴 보자.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배부른 상태라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대단한 고육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그 음식에 몹시 체하기라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꺼려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우 기 그 특정한 사람을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이 특정한 음식이 맛있다는 감각은

에자재한 경지에서 살피면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는 것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된다. 박테리아의 예를 들어 다시 살펴보자. 우리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싫어하며 따라서 음식을 상하게 하는 박테리아와 같은 것을 싫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란 부패가 없는 세계이니 이는 고생대의 식물에서부터 암모나이트와 공룡은 물론이고 가까운 우리의 선조까지 그 모든 시체가 널려있는 참으로 참담한 세계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는 박테리아조차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박테리아 때문에 봄이면 파란 새끼이 돌아오는 푸른 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육근의 판단은 시간·상황따라 달라지는 것 무집착 상태에서 보면 일체가 차별없는 경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허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달라진다.

아름답거나 깨끗하다는 감각이 앞에서 예로 든 허의 감각보다 보편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오랜 옛날부터 특정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아주 독특한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우리는 썩은 음식을 냄새 맡기도 싫어한다. 이는 썩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몸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터득하였고, 이 정보가 우리의 감각에 각인된 결과이다. 파리는 곤충에게 이 썩은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될것이니 이 음식 자체가 꺼려야 할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음식이 더럽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파리도 또한 인간과 같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거나 더럽다는 명칭은 인간이라는 특수한 존재가 그 대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준으로

먼지의 예를 하나 더 살펴 보자. 일상 생활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먼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먼지가 공중에 있으므로 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가 내리게 된다. 따라서 푸른 풀이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 더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먼지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특수한 감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아름다움이나 깨끗함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무명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무명의 구속에서 해탈하여 무심과 무집착의 경지에서 모든 것을 관조하며 포용한다면 깨끗하고 가까이 하고 더럽다고 멀리할 것이 없으며, 아름답게 보인다고 존귀하게 대하고 더럽게 보인다고 비천하게 대할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일체에 결림없이 자재한 관자 재보살이 반야심경에서 전식득지(轉識得智)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는 민법경 등의 가르침이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부처님 법문은 곧 우리의 청정심 자기자신 바로 알지 못할때 불행

천의 법문입니다. 팔만사천의 법문은 중생의 근기가 모두 달라서 근기에 맞게 말씀하다 보니 이처럼 방대한 논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파도로 인해서 천파만파가 생기는 것인데 이 천파만파라고 하는 것은 각기 모양은 다를지언정 그 내용인 진맛에는 허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법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이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마음을 보아야지 마음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중생이지요. 이렇게 되면 마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또한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마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선에는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상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습니다.

범부선은 단순히 중생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는 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말이 선이지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승선은 4념처, 7각지, 5정심, 위빠사나 등 초기불교에서 행해진 수행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남방불교에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대승선은 반주삼매경을 비롯한 각종 대승경전에 나오는 선이나 관(觀)자가 경의 첫머리에 붙은 경전들에 나오는 선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최상승선이란 보리달마 스님께서 면벽수선하기 시작하여 조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조사에게 전하여 비롯되었다는 뜻에서 조사선이라고도 합니

수 있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화두만 제대로 들면 확철대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두를 영원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화두는 환구이고 화두를 벗어나면 사구입니다. 화두를 벗어나서는 절대 견성할 수 없고 견성이 안되면 성불이 안되고 성불이 안되면 법도 마음도 자기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근본 뜻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무명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산고행을 하신 도는 단순한 명상, 관법, 기도가 아닙니다. 우주와 인생의 참된 진리, 알지 못하는 의심을 풀기 위해 수도 했을 뿐입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들었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 도서명 / 42장경 1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각들
- 저·역자 /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황광우/이경옥
- 판 형 / 신국판/ 각권 452쪽 내외
- 가격 / 각권 7,500원
- 발행일 / 1권 1995년 4월 20일 2권 1995년 5월 10일
- 발행처 / 도서출판 성하

..... 전화 778-6826~7, 팩스 778-6828